

# 초기증상 거의 없는 '침묵의 살인자'...정기검진 필수



류성엽  
조선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 위암

**'한국인의 암' 1위→최근 5위 집계  
매년 수만명 진단·사망률 최상위권  
발병 영향 식습관 등 환경적 요인 ↑  
조기 발견 시 완치율 95% 이상**

오랫동안 '한국인의 암' 1위 자리를 지켰던 위암의 위상이 달라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최신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에 이어 전체 암 발생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건강검진이 보편화되고 조기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위암의 전 단계인 '위 선종(용종)'이나 '이형성증'을 내시경으로 미리 발견해 제거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위암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적극적인 제거 치료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순위가 내려갔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르다. 여전히 한 해에만 수만명의 사람들이 위암을 진단받고 있으며, 국가데이터(구 통계청)가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폐암, 간암, 대장암과 함께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류성엽 조선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를 통해 위암 발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예방법 등을 알아본다.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많은 환자가 암 진단을 받으면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데 왜 걸렸을까?"라며 의아해한다. 하지만 위암은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는 질환이다. 물론 부모나 형제 중 위암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2~3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유전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가족이 공유하는 식습관(찌개 같이 먹기, 맵고 짠 반찬 선호 등)과 헬리코박터균의 가족 간 감염이 원인인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유전적 변이(CDH1 유전자 등)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성 위암은 전체의 1~3% 내외에 불과하다.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다. 이 균은 위 점막에 기생하며 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이를 방치할 경우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과 위 세포가 장 세포처럼 변하는 '장상피화생'으로 진행돼 위암 발생 위험을 10배 이상 높인다. 이외에도 가공육이나 훈제 식품에 들어있는 질산염 화합물, 흡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위 점막 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켜 발암 물질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즉, 위암은 선천적인 요인보다 내가 매일 먹고 마시는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물이다.

### ◇미세한 신호 '이유 없는 체중감소' 등

위암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는 초기



류성엽 조선대학교병원 외과 교수가 위암 환자에게 로봇 위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병원 제공)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기 위암 환자의 80%는 무증상이며,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을 느끼더라도 일반적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인해 소화제만 먹으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암이 진행되면서 미세하게나마 신호를 보낸다. 만약 40대 이상이거나 소화기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는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가장 눈에 띄어야 할 것은 이유 없는 체중 감소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6개월 이내에 체중이 5~10% 이상 빠진다면, 암세포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거나 위 기능 저하로 영양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한 위장 내 출혈로 인해 자장면 색깔 같은 검은 변(흑색변)을 보거나 피를 토하는 경우, 지속적인 빈혈로 어지러

움을 느끼는 경우도 위험 신호다. 암 덩어리가 커져서 식도를 막으면 음식을 삼키기 힘든 연하 곤란이 오고, 심이지장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먹은 음식을 자주 토하게 된다. 복부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내시경 박리술·복강경·로봇수술 대체  
암세포가 점막층에만 얽혀 머물러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초기의 경우 배를 열지 않고 내시경으로 암을 떼어내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ESD)'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 위를 보존해 식생활에 지장이 없고 회복이 매우 빠르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과거처럼 배를 크게 여는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대세다. 특히 로봇 수술은 입체적인 3차원 수

술 시야와 정교한 관절 움직임을 통해 림프절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신경 손상을 최소화해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의 경우 외과, 소화기내과, 종양혈액내과 등 여러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환자 맞춤형 치료법을 찾는 '다학제 통합 진료'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도 선행 항암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인 뒤 수술을 시도하거나, 환자의 암세포가 가진 유전자 특성에 맞는 표적치료제 및 면역항암제를 처방하는 등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만 40세 이상 '위내시경' 큰 도움

위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5% 이상인 질환이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다. 우리나라는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은 그룹은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약 5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위암 예방을 위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거 치료를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위궤양 등이 있을 때만 치료를 권했으나, 최근에는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 혹은 환자가 원할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제거 치료를 시행해 위암 발생률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귀찮다고 미룬 검진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증상이 없을 때 받는 내시경이야말로 당신의 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지다. /정리=기수희기자

## 제12대 화순전남대병원장에 이완식 소화기내과 교수

전남대치과병원장엔 임현필 교수

화순군립요양병원장 김형록 교수



이완식 임현필 김형록

제12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에 이완식 소화기내과 교수가 임명됐다. 제9대 전남대학교치과병원장엔 임현필 치과보철과 교수, 제8대 화순군립요양병원장엔 김형록 대장항문외과 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2년이다. 10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67차 정기이사회와 97차 서면이사회를 열어 전임 보직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인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완식 신임 화순전남대병원장은 1994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1년 전남

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소화기암 및 내시경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 2013~2019년 의료질관리실장을 지내며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체계 구축에 힘썼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한상부위장관학회 이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 등 다양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임현필 신임 전남대치과병원장은 2000년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 동 대학원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후 전남대치과병원 교육연구부장·기획부장·진료부장을 역임했다. 대한치과보철학회, 대한턱관절교합학회,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형록 신임 화순군립요양병원장은 1987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전남대 의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후 화순전남대병원 기획실장·진료처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광주전남 외과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암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수희기자

## 전남대병원, 'AI 기술'로 뇌졸중 골든타임 사수

'제이엘케이 솔루션' 병변 자동 분석 속도·정확도 제고...협진 효율 극대화

전남대병원이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을 임상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며 광주·전남 지역 뇌졸중 환자들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스마트 의료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 AI 전문기업 제이엘케이(JLK)의 뇌졸중 AI 솔루션을 도입, 실제 진료 현장에서 뇌 CT 및 MRI 영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번 도입된 AI 솔루션은 환자의 영상 촬영 직후 AI가 자동으로 병변을 분석해 주요 지표로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손각을 닦는 뇌졸중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보다 빠르고 객관적인 치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의료진 간의 신속한 협진 과정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지역 중증·응급 환자 치료의 핵심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AI 솔루션 활용이 지역 내 뇌졸중 치료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 전남대병원장은 "뇌졸중은 치료 시점이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응급 질환"이라며 "국가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최첨단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b>1:1 교육</b>	<b>★왕초보 레슨반</b>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b>★구장 실전체험</b>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b>자격증 취득반</b>	파크골프,지도사2급 파크골프,지도사1급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개인별,수시접수 (이론,실기) 2급/누구나 가능 <b>▶ 2급/28만</b> <b>▶ 1급/35만</b> <b>▶ 심판/10만</b>

**■ 자격취득반/수시접수** ▶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